

도시신혼기가계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

— 가정경제자립유형을 중심으로 —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of Family Life :
By the type of Self-Support of Newly Married Household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임 정 빈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고 보 선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Prof. : Jeong-Bin Im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Doctoral course : Bo-Sun Koh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type of self supporting economically, and the relation with the type of self-supporting, perception of family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of family life.

The data was collected from newly married housewives an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

1. The type of self-support was about 50% of subjectives, the housewives of this type relatively older, higher income, and they are lower in intimacy with husband's family, perception of financial security and satisfaction of family life.
2. The type of support was 30% of them, they are relatively older, higher educated, and higher income level. They are medium in intimacy with husband's family, and

* 본 연구는 1993년도 한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satisfaction of family life, but they percept financial security very highly.

3. The type of dependence was relatively younger, very high educated. They are closed with husband's family, satisfied with family life, but not in perception of financial security.

I. 서론

신혼기 가계는 다양한 경제적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가정생활 주기로 볼 때 미래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와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며 다른 단계에 비해 비교적 지출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축적하고자 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혼기 가계는 부부간의 적응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현재 신혼기 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세대를 볼 때, 크게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독립시켰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이다. 셋째, 부모세대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결혼시킨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세가지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현재 신혼기에 있는 젊은 부부의 가정경제를 스스로 꾸려가는 자립형,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양형, 그리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의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혼기 가계중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가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존형과 부양형, 그리고 독립형은 어떠한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신혼기 가계가 경제적인 계획을 하고 생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각 유형에 따른 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하여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파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여 사회경제적 변인과 가정경제자립유형을 투입요소로 본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는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주택소유형태, 주택의 크기, 주부의 연령, 그리고 주부의 학력을 포함시켰으며, 가정경제자립유형은 부양형, 의존형, 자립형으로 구분하였다.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심리적 친밀도를 과정요소로,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를 산출요소로 구성하였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투입, 과정, 산출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신혼기 가계

신혼기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온 두 사람이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등에 서로 적응하여 가는 시기로서, 가정생활의 틀이 형성되며 가족계획, 자녀교육, 주택문제, 경제계획 등 가정생활진반에 걸쳐 장래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가계소득에 비하여 비교적 지출이 적은 시기이나, 결혼의 소비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낭비하기 쉽다. 가족생활주기단계에 따라 가족구성에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의 인적, 관리적 체계에 주어지는 요구와 사용가능한 자원도 변하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하여 저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신혼기 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경제, 부부관계, 그리고 주거 등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신혼기의 가정경제는 가정경제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가정생활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적자원의 운영이 그 주요내용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앞으

로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신혼기 부부는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출성향이 높다고 하였으나(Welles & Gubar, 1957), 저축율은 이 시기에 가장 높고(조희균, 1984 : 이기춘 · 민현선, 1992) 주택마련이 가장 큰 저축목적이라고 하였다.

Stampfl(1979)은 신혼기가계는 상품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완성기술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를 습득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이 시기의 소비생활의 문제는 저축습관의 결여, 부부간의 소비의 우선순위의 차이, 충동구매, 구매형태의 변화, 빈번한 주거이동등을 들고 있다.

신혼기의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보면, 가정생활주기 초기단계보다 후기로 갈수록 결혼생활에 불만이 더 커져, 결혼년수의 증가에 따른 배우자의 비호의적 인식의 증가를 보였다(정충량 · 이효재, 1970).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부부갈등은 가정생활주기 중 형성기에서 자녀교육시기까지 부부갈등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영옥 · 한상순, 1987).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사소통은 자녀가 있는 신혼기가족의 의사소통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은숙, 1983), 대화형에서 신혼기가족은 가장 개방적이었으나, 비언어적 매체이해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숙, 1988).

신혼기 가계의 주거계획은 일반적으로 주거규모확대, 주거질적수준향상, 자가소유 등 3가지 목표로 요약되며, 특히 자가소유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주거계획목표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주거소유는 사회적 지위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한 투자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이기춘, 1992).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거이동을 하게 되는데, 주거이동은 그 이동동기에 따라 강제적 이동과 자발적 이동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도시의 경우 주거상황이 불안정하므로 갑작스런 임대료의 상승 등에 따른 주거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은정, 1986).

조은정(1994)은 신혼주거를 중심으로 신세대소비

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에 관한 연구에서 신세대에게 좋은 주거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부가 편리하게 되어야 하며, 안전문제와 교통편리는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미적인 측면, 프라이버시, 자연환경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신혼기 가계에 관한 연구는 부부를 중심으로 경제문제, 의사소통문제, 주거문제를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가계의 경제적 자립 정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시대와 친정과 관계로 함께 고려하여 이것과 경제자립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2. 가정경제안정도인지

1) 가정경제안정도

가정경제안정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가계소득적정도와 가정경제문제 경험빈도를 조사하여, 그 가정의 경제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가 있다(Yuen, 1976; 김민정, 1984; 임정, 1988; 김연정, 1991; 고보선 · 임정빈, 1992). 둘째,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가정경제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가 있다(Bauer & Dunsing, 1981; Marlow & Godwin, 1988; Sherraden, 1989; 김경자, 1993; 이종혜, 1993). 셋째, 이미 설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정경제안정도를 평가한 연구가 있다(Garfinkel, 1990).

한편, 가정의 경제복지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안정도의 개념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김경자, 1993).

2) 가정경제안정도인지

인지는 행동에 관한 문제로서 "객관적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지된 환경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Rowland, Dodder, & Nickols, 1985). 일반적인 복지감은 자원의 양보다는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에 달려있다(Campbell등,1976)고 하여 주관적인 인지의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주관적인 경제안정도는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재정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나 은퇴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서 재정적 자원의 확보정도를 의미한다(Davis & Helmick, 1985).

Davis & Helmick(1985)는 소득 대 저축의 비율, 예비비에 대한 만족, 그리고 미래의 재정안정에 대한 만족 등으로 재정안정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으며, Williams & Berry(1984)는 부부의 가족재정지출에 대한 일치정도와 미래의 재정안정도인지를 측정하였으며, Vicki & Dunsing(1986)은 재정위기시의 해결능력에 대한 만족, 은퇴시 충분한 자원보장에 대한 만족, 저축에 대한 만족 등으로 재정안정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으며, 그리고 Titus, Fanslow, & Hira(1989)는 부채지불능력, 자산수준에 대한 만족, 그리고 긴급지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재정적 안정을 측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주관적 재정안정도와 가정경제만족도간에는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생활만족도를 연구하고자 할 때, 주관적인 가정경제안정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Vicki & Dunsing(1986)과 Mammen, Helmick, & Metzen(1986)는 소득은 객관적인 배경에 대한 지표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복지감(생활의 질)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안정성은 사람들의 복지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보선·임정빈, (1992)은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척도보다 실제로 인지한 주관적, 심리적인 척도가 주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영역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아 주관적 척도에 초점을 맞추어 가계소득적정도인지와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를 조합하여 측정하였으며,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간에는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경자(1993)는 경제적 안정도를 '한 가계가 경제적 곤경에 대처하여 일정한 소비수준 또는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를 위한 측정방법으로 자산을 이용하였다.

황덕순(1993)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적 안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 모두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안정이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가정의 경제적복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정경제안정도 평가를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측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 자산등의 객관적 변인에 대한 가계관리자의 주관적 경제안정도인치가 복지감에 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3)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을 가정생활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 혹은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간의 일치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임정빈, 1988)이라고 볼 때, 신혼기가계의 가정생활만족은 가정생활주기의 다른 단계에 비하여 이 둘간의 차이가 적은 시기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결혼초기의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urr, 1970 ; Spanier, 1980 ; 임정빈, 1988 ; 조미환, 1990).

가정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이 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임정빈, 1988), 가정생활주기(김숙이·문숙재, 1988)등 객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된바 있다. 한편, 재정에 대한 예측인자로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지와 재정적 향상에 대한 열망이라고 Davis & Helmick(1985)가 제시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재정지출에 대한 부부의 일치정도가 결혼만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Berry & Williams, 1987) 결혼만족은 생활의 질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정의 금전관리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금전관리자가 인지한 가계재정상태의 변화와 총자산의 변화이며 특히 과거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

아졌다고 인지하는 금전관리자는 만족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Hira, Fanslow, & Titus, 1989).

가정생활만족은 가치성향이 인본주의이며,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더 높고(임정빈, 1988),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도 높을 때(송말희·이정우, 1986 ; Mugenda등, 1990) 여가생활, 열망성취로에 만족하고 가정관리능력을 인지할 때(김숙이·문숙재, 1988), 주부의 자아긍정감이 클 때(최외선·손현숙, 1991), 그리고 부부간의 응집성이 결혼만족의 중요한 변인임을 말하고 있다(Hyun등, 1993).

이상에서 볼 때, 가정생활만족은 객관적인 변인과 그 객관적인 변인에 대한 주관적 인지 그리고 부부간에 심리적인 교류와 일치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혼기가계의 경제적 자립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경제적변인에 따른 가정경제자립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회경제적변인에 따른 심리적 친밀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및 가정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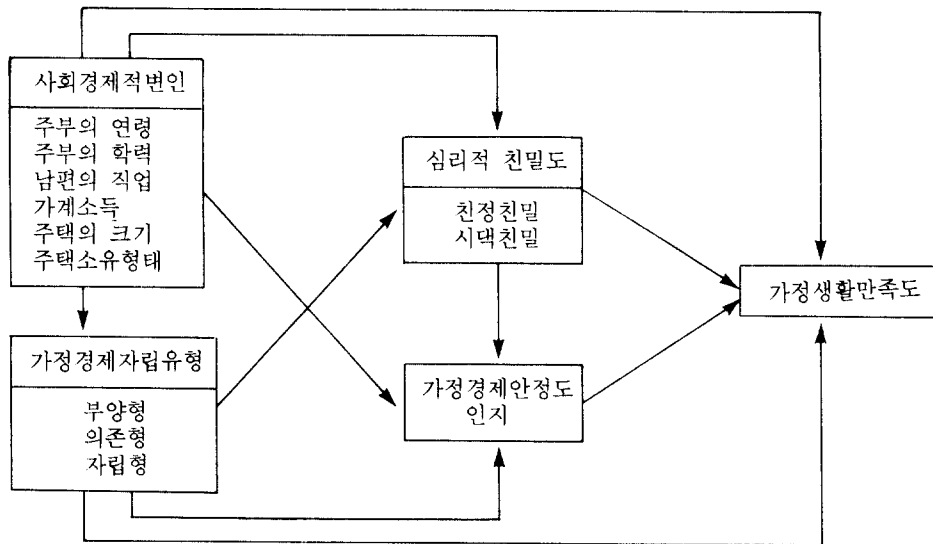
가정경제자립유형에 따른 심리적 친밀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및 가정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가정경제자립유형별 심리적 친밀도와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

혼인가계의 주부이다. 예비조사는 19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의 신뢰도를 기초로 하여 본 조사는 1993년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지역,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남편의 직업, 가계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층 표집을 하였다.

조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500부를 배부하여 457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345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신혼가계

신혼가계는 결혼에서 첫 자녀의 연령이 5세이하인 가정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2) 가정경제자립유형

가정경제자립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양형은 친정이나 시댁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의존형은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자립형은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물질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경우로, 자신의 가정만

을 위해서 가계운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조사도구

1) 가정경제자립유형

이 척도는 신혼가계의 경제적 자립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양에 관한 문항 6개문항(친정, 시댁), 의존에 관한 문항 6개문항(친정, 시댁)으로 구성하였다. 부양형은 친정이나 시댁을 금전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¹⁾ 의존형은 친정이나 시댁에 금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의존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립형은 친정이나 시댁을 금전적으로 부양하지도,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심리적 친밀도 척도

이 척도는 친정 및 시댁과의 친밀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친정과 친밀도 3개 문항과 시댁과의 친밀도 3개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리커트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alpha = .762$ 이다.

3) 경제안정도인지 척도

이 척도는 선행연구²⁾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하

1) 부양형과 의존형을 구분하는 액수의 근거는 응답자의 평균소득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부양액수, 의존액수〉

부양액수		의존액수	
	10-15 만원	47(54.4)	19(31.7)
	20-25 만원	19(22.1)	20(33.4)
	28-40 만원	13(15.2)	30-50 만원
	60-100만원	7(8.3)	60-130만원
계		86	60
범위 : 10-100만원(M=19만원)		범위 : 10-130만원(M=31만원)	

2) Campbell등(1976)의 만족·불만족 척도, 이기영(1984)의 상대적 박탈감·열망·기대척도, 김민정(1984)과 임정(1988)의 가계소득적정도인지 척도, 그리고 정선희(1987)의 가정경제문제경험빈도척도를 기초로 고보진(1991)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였다. 가계소득적정도인지 3개문항, 경제문제경험빈도³⁾ 3개문항을 조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인지함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alpha = .891$ 이다.

4) 가정생활만족도 척도

이 척도는 선행연구(임정빈, 1988)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만족도의 하위영역으로 전반적인 가정생활만족,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친정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전반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의 5개 하위영역 각 2문항씩 총 10문항을 조합하여 척도를 구성하여 신혼기가계의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alpha = .874$ 이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χ^2 , ANOVA,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주부의 연령은 20대와 30대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계소득은 51-150만원의 범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가계소득의 중앙값은 100만원이다. 주택의 크기는 16-25평이 가장 많았다. 주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절반을 넘어 대체로 학력은 높은 편이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자립유형의 분포는 자립형이 약 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양형 30%, 의존형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기반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신혼기 가계에서 자립형이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N(%)
주부의 연령	
20代	151(44)
30代	192(56)
계	343
가계소득	
50만원이하	14(4.2)
51-100만원	131(39.2)
101-150만원	135(40.4)
151-200만원이상	50(15.0)
계	329
주택소유형태	
자가	132(39.8)
임차	200(60.2)
계	332
주택의 크기	
15평이하	99(29.0)
16-25평	143(41.9)
26-35평	72(21.1)
36평이상	27(7.9)
계	341
주부의 학력	
대졸미만	155(45.6)
대졸이상	185(54.4)
계	340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	121(35.5)
사무직	121(35.5)
상공자영업	49(14.4)
기능·노무직	36(10.6)
계	330
가정경제자립유형	
부양형	86(29.0)
의존형	60(20.2)
자립형	151(50.8)
계	297

가정만을 위해 가계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3) 경제문제경험빈도는 역으로 점수를 주었다.

한 현상이라고 본다. 자립형의 경우 가계소득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인 것은(〈표 2〉), 이러한 가정의 경제력이 자신의 가계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사회경제적변인에 따른 가정경제자립유형

사회경제적 특성	정경제자립유형 N(%)		
	부양형	의존형	자립형
주부의 연령			
20대	35(41.2)	40(66.7)	59(39.1)
30대	50(58.2)	20(33.3)	92(60.9)
X2	14.000***		
가계소득			
50만원이하	1(1.2)	8(13.6)	5(3.4)
51-100만원	30(35.7)	25(42.4)	60(41.1)
101-150만원	33(39.3)	20(33.9)	65(44.5)
151-200만원이상	18(21.4)	4(6.8)	16(11.0)
X2	24.986***		
주택소유형태			
자가	31(36.9)	27(45.8)	56(38.6)
임가	53(63.1)	32(54.2)	89(61.4)
X2	1.250		
주택의 크기			
15평이하	24(28.6)	10(16.7)	50(33.1)
16-25평	33(39.3)	28(46.7)	60(39.7)
26-35평	19(22.6)	13(21.3)	33(21.9)
36평이상	8(9.5)	9(15.0)	8(5.3)
X2	9.608		
주부의 학력			
대졸미만	38(44.7)	13(21.7)	73(49.0)
대졸이상	47(55.3)	47(78.3)	76(51.0)
X2	13.411***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	29(34.5)	23(41.8)	48(33.1)
사무직	33(39.3)	23(41.8)	55(37.9)
상공자영업	14(16.7)	5(9.1)	24(16.6)
기능·노무직	6(7.1)	3(5.5)	18(12.4)
X2	8.643		

*** P<.001

부양형이 30%가 되는 것은 신혼기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세대가 노

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결과로 보인다. 액수면에서 보면 의존형의 의존액수가 부양형의 부양액수보다 더 많아(평균 31만원 : 19만원) 양적인 의존도는 낮지만, 질적인 의존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주 1) 참고). 의존형과 자립형의 가계소득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표 2〉), 의존형의 경우는 결혼전의 소비성향이 결혼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비교적 높은 가계소득에도 불구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부모로부터의 물리적인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물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가정경제자립유형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연령, 주부의 학력, 그리고 가계소득(P<.001)으로 나타났다(〈표 2〉).

주부의 연령은 20대의 경우 자립형 > 의존형 > 부양형의 순이며, 30대는 자립형 > 부양형 > 의존형의 순으로 나타나, 20대, 30대 모두 자립형이 많은 분포이며, 가정경제자립유형별로 보면, 부양형은 30대에, 의존형은 20대에, 자립형은 30대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기 가계라고 하더라도, 30대는 20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양형과 자립형이 많고, 20대의 경우 자립형보다 의존형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부의 학력별로 보면, 부양형과 자립형은 대졸미만과 대졸이상에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의존형의 경우는 대졸이상이 대졸미만보다 3배이상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대졸이상은 대졸미만보다 대체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가 늦기 때문에 가정생활유지를 위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또 한가지는 신혼기가계소득으로는 결혼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본다.

가계소득은 세가지 유형모두 51-150만원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부양형과 자립형의 경우는 151-200만원이상의 경우가 의존형에 비해 많은 분포를 보여 부양을 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가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직접적인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

3. 사회경제적변인에 따른 친밀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

친정친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학력(P<.001)과 남편의 직업 (P<.05)으로,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일 때,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전문기술직일 때, 친정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주부의 친정과의 친밀은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시댁친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택소유형태(P<.01)와 주택의 크기 (P<.01)로, 주택이 자가인 경우와 큰 평수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시댁과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할 때, 대부분의 경우 시댁으로 부터 주택마련시 크게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시댁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댁과의 친밀도는 의존형 > 부양형 > 자립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존형이든 부양형이든 부모세대와의 친밀도가 자립형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보면 물질적인 교류가 있으면 심리적인 친밀도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가계소득(P<.001), 주택소유형태(P<.001), 그리고 남편의 직업(P<.01)으로, 가계소득이 많은 경우, 주택이 자가인 경우,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가정경제안정도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경제안정도는 객관적인 가정경제상태를 근거로 평가한다는 점을 암시한 결과이다. 즉, 가계소득과 그 원천이 되는 남편의 직업, 그리고 주택소유형태는 주부가 인지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주관적인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 가계소득을 제외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경제 안정도인지와 주택의 크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지 주택의 소유여부가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경제자립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양형 > 의존형 > 자립형의 순으로 나

타났다. 부양형의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주부의 학력, 주택소유형태, 그리고 남편의 직업(P<.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정생활만족도와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간에는 높은 정적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학력이 높으면 대부분 남편의 학력이 높고 그에 따라 남편의 직업위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의 직업은 남편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남편의 직업위세가 높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반적인 경제상태에 대하여 만족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보다 대인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시댁, 친정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의존형 > 부양형 > 자립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존형의 경우에 가정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우선 부모로부터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아 살고있기 때문에 당장 불편함을 모르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가 자신의 가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성취감이나 만족감보다 부모로부터 얻는 물질적인 도우미에 만족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가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주부의 학력, 주택소유형태, 그리고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이 변인은 가정생활만족도를 인지하는데 경제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친밀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 변인에 있어서, 자립형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신혼기 가정이 스스로 가계운명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나타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친밀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정생활만족도

변인	친정친밀		시댁친밀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정생활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부의 학력								
대졸미만	3.421(152)	1.078	3.903(150)	.986	3.575(146)	.719	3.215(146)	.690
대졸이상	3.816(185)	.968	3.848(181)	.963	3.708(180)	.672	3.552(179)	.788
T값	-3.54***		.51		-.72(326)		-4.05(325)***	
가계소득								
50만원이하	3.536(14)	1.248	3.786(14)	1.122	3.121(13)	.922	3.379(14)	1.316
51-100만원	3.562(129)	1.019	3.750(122)	1.068	3.459(123)	.678	3.348(126)	.723
101-150만원	3.656(135)	1.003	3.869(134)	.940	3.711(132)	.633	3.364(127)	.720
151-200만원이상	3.830(50)	1.141	4.080(50)	.823	4.083(50)	.626	3.666(47)	.764
F값	.852(327)		1.371(319)		13.647(317)***		2.198(313)	
주택소유형태								
차가	3.775(131)	1.014	4.097(124)	.932	3.916(128)	.617	3.618(126)	.751
임차	3.560(199)	1.051	3.732(198)	.992	3.490(191)	.708	3.279(189)	.743
T값	1.84 (330)		3.28(322)**		5.55 (319)***		3.95 (315)***	
주택크기								
15평이하	3.607(98)	1.078	3.613(97)	1.064	3.532(95)	.778	3.282(94)	.783
16-25평	3.616(142)	1.070	4.040(137)	.877	3.657(135)	.681	3.418(135)	.722
26-35평	3.715(72)	.911	3.764(70)	.999	3.734(72)	.630	3.454(70)	.750
36평이상	3.827(26)	.871	4.308(26)	.749	3.846(25)	.599	3.608(25)	.920
F값	.463(337)		5.907**		1.927(326)		1.516(323)	
주부의 연령								
20대	3.660(150)	.989	3.840(147)	1.019	3.626(141)	.735	3.479(147)	.748
30대	3.632(190)	1.071	3.892(185)	.946	3.676(188)	.671	3.332(179)	.770
T값	.25(340)		-.48(332)		-.63(329)		1.73(326)	
남편의 직업								
전문기술직	3.868(121)	.985	3.929(120)	.945	3.849(117)	.638	3.617(118)	.814
사무직	3.630(119)	.988	3.830(115)	1.006	3.601(116)	.656	3.319(114)	.710
상공자영업	3.531(49)	1.002	3.823(48)	.959	3.580(49)	.729	3.142(45)	.701
기능노무직	3.375(36)	1.085	3.914(35)	1.004	3.416(33)	.873	3.337(35)	.620
F값	2.999*(324)		.268(317)		4.823**(314)		5.711(311)***	
가정경제자립유형								
부양형	3.729(86)	1.059	3.941(85)	.898	3.760(81)	.657	3.455(80)	.660
의존형	3.875(60)	.964	4.119(59)	1.076	3.684(57)	.768	3.661(59)	.890
자립형	3.544(149)	.991	3.663(144)	.940	3.541(148)	.661	3.305(143)	.731
F값	2.553(295)		5.428(288)**		2.925(286)*		4.839(282)**	

* P<.05 ** P<.01 *** P<.001

4. 경로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정경제자립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결과는 <표 4.1>, <표 4.2>, <그림 2>와 같다.

주택이 자가일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여 객관적인 경제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 주관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친정과 시댁모두와 친밀할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혼기 가계의 주부로서 시댁과의 관계적응에 있어서나 친정과의 관계유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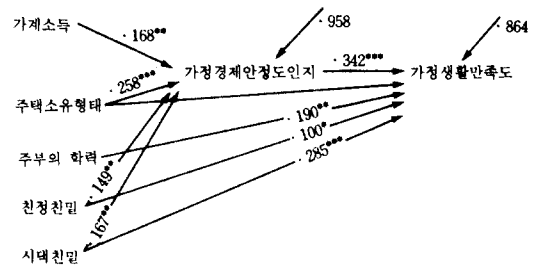
<표 4.1> 최종회귀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계수(전체)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계소득	.022	7.097E-03	.168**
	주택소유형태	.372	.077	.258
	친정친밀	.100	.036	.149**
	시댁친밀	.119	.039	.167**
	상수	2.528	.181	
N=297 SEE=.632 R ² =.204 F=18.739***				
가정생활만족도	주부의 학력	.293	.074	.190***
	주택소유형태	.108	.078	.069
	친정친밀	.074	.036	.100*
	시댁친밀	.228	.040	.285***
	가정경제안정도인지	.376	.057	.342***
상수	.391	.251		
N=296 SEE=.613 R ² =.369 F=33.917***				

* P<.05 ** P<.01 *** P<.001

<표 4.2> 관련변인의 인과효과(전체)

독립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소득	.057	-	.057
주택소유형태	.157	.069	.088
주부의 학력	.190	.190	-
친정친밀	.151	.100	.051
시댁친밀	.342	.285	.057
가정경제안정도인지	.342	.342	-



<그림 2> 경로모형(전체)

먼저 최종 회귀분석모델에 포함된 변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인 사회경제적 변인은 가계소득 ($\beta=.168$)과 주택소유형태($\beta=.258$)이며, 심리적 친밀도 변인은 친정친밀($\beta=.149$)과 시댁친밀($\beta=.167$) 모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0.4%이다. 즉,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있어서나 바람직한 결과라고 본다.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 변인은 주부의 학력($\beta=.190$)이며, 심리적 친밀도 변인은 친정친밀($\beta=.100$)과 시댁친밀($\beta=.285$) 모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리고 가정생활만족도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가정경제안정도인지($\beta=.342$)도 역시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

다.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7%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인 중 주택소유형태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는 유의미하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나, 가정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의 경우에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학력, 직업위세와 관련있으며, 가정 전반적인 생활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대안선택이 가능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기술이나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심리적 친밀도 변인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 시대와 친정과 모두 친밀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시대친밀($\beta = .285$)이 친정친밀($\beta = .100$)보다 그 영향력의 정도가 더 높음을 볼때, 신혼기 가계의 주부는 부부간의 적응뿐만 아니라 시대가족과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기 때문에, 친정친밀보다는 시대친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는데,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경제안정도는 신혼기 가계에서도 역시 가정생활만족도에 강한 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자립도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둘간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접효과를 고려하여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보인 변인은 주택소유형태로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쳤으며, 이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가정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말한다. 즉, 주택소유형태가 자산의 한 형태인 객관적인 경제요소로 작용하여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토대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심리적 친밀도 변인은 모두 가정생활만족도에 직

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정친밀과 시대친밀 모두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영향력 정도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심리적인 친밀도가 가정경제안정도를 정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가정경제자립유형별로 경로분석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양형

부양형의 경로분석결과는 <표 5.1>, <표 5.2>, <그림 3>과 같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가계소득($\beta = .321$)과 주택소유형태($\beta = .265$), 주택의 크기($\beta = -.321$)이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6.2%이다. 즉,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일수록, 그리고 주택의 크기가 작을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양형인 경우는 자신의 신혼가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친정이나 시대를 부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친밀도 보다는 그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력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크기가 작을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한 결과는 부양형의 경우는 가계경제의 일부를 부모의 부양을 위해 지출하는 입장이므로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와는 달리, 주택의 규모가 작은 것이 오히려 가정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인지하는 요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주택소유형태($\beta = .396$), 주부의 연령($\beta = -.326$), 가정경제안정도인지($\beta = .304$)이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0%이다. 즉, 주택이 자가일수록, 젊은 주부일수록, 그리고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고 동시에 주택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므로 가정생활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주택소유형태는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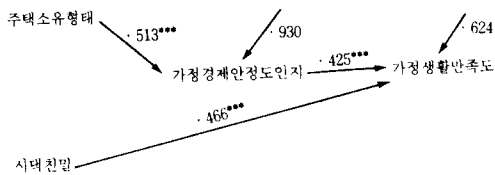
〈표 5.1〉 최종회귀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계수(부양형)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계소득	.241	.084	.321**
	주택소유형태	.363	.175	.265*
	주택의 크기	-.234	.095	-.321**
	상수	3.430	.268	
N = 73 SEE = .620 R ² = .162 F = 4.572**				
가정생활만족도	주택소유형태	.542	.149	.396***
	주부의 연령	-.434	.144	-.326**
	가정경제안정도인지	.300	.101	.304**
	상수	.300	.445	
N = 70 SEE = .566 R ² = .300 F = 9.694***				

* P<.05 ** P<.01 *** P<.001

〈표 5.2〉 관련변인의 인과효과(부양형)

독립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소득	.098	-	.098
주택소유형태	.476	.396	.08
주택의 크기	-.098	-	-.098
주부의 연령	-.326	-.326	-
가정경제안정도인지	.304	.304	-



〈그림 3〉 경로모형(부양형)

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소유형태변인이 직접적인 경제력으로 작용하여 가정생활만족을 높였다고 본다.

젊은 주부일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크다는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젊은 주부이면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때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가계소득과 주택의 크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두 변인 모두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경유한후 가정생활만족도로의 영향력은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소유형태의 경우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경유한후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아져, 부양형의 경우는 주택소유형태가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양형의 경우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는 경제적 요소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이것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는 객관적인 경제요소를 통하여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심리적 친밀도는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친정이나 시택을 부양하는 것은 심리적인 친밀을 떠나서 부모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한 의무감이나 혹은 효의 의미로 행하는 것이므로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와 무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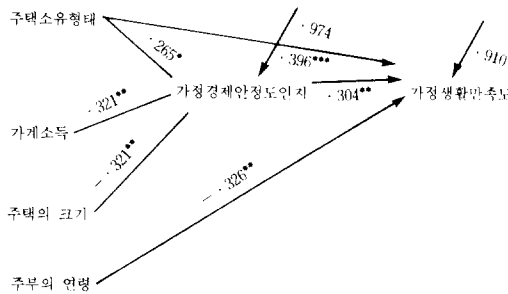
〈표 6.1〉 최종회귀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계수(의존형)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가정경제안정도인지	주택소유형태 상수	.787	.179	.513***
		3.329	.122	
		N = 54 SEE = .668 R ² = .264 F = 19.330***		
가정생활만족도	시택친밀 가정경제안정도인지 상수	.386	.079	.466***
		.481	.132	.425***
		.241	.443	
N = 52 SEE = .556 R ² = .613 F = 26.355***				

*** P<.001

〈표 6.2〉 관련변인의 인과효과(의존형)

독립변인	종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주택소유형태	.218	-	.218
시택친밀	.466	.466	-
가정경제안정도인지	.425	.425	-



〈그림 4〉 경로모형(의존형)

2) 의존형

의존형의 경로분석결과는 〈표 6.1〉, 〈표 6.2〉, 〈그림 4〉와 같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주택소유형태($\beta = .513$)이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6.4%이다. 즉,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부양형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존형의 경우는 주택소유형태가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경유하여 가정생활만족도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양형의 경우는 직접, 간접적 영향을 보였다. 즉, 의존형의 경우는 신혼기가 거의 가장 우선적인 경제문제라고 볼 수 있는 주택 마련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정경제를 안정적으로 인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양형의 경우는 주택소유형태가 자산의 한 형태로 가정의 경제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변인은 시택친밀($\beta = .466$)과 가정경제안정도인지($\beta = .425$)이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61.3%이다. 즉, 시택과 친밀할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부양형과 비교했을 때, 의존형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사회경제적변인이 없었으며, 심리적 친밀도 중 시택친밀만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의존형의 경우는 친정이나 시택으로 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관적인 요소보다는 심리적인 친밀도 특히, 시택친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효과를 고려하여 설명하면, 의존형의 경우는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주택소유형태로 나타났다. 즉, 자가소유일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며, 이러한 결과가 가정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주택인 경우는 신혼기가 거의 가장 큰 경제문제로 볼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정경제를 안정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며, 이것이 결국, 가정생활만족도를 높게 인지하는 결과가 되

는 것이다.

3) 자립형

자립형의 경로분석결과는 <표 7.1>, <표 7.2>, <그림 5>와 같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직접적인 영향

도인지를 평가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심리적인 친밀도가 친정과 시댁의 영향력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자립을 하면서도 양가와 비슷하게 심리적으로 친밀하다는 것은 신혼가계뿐만 아니라, 부모역시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금

<표 7.1> 최종회귀분석석모델에 사용된 변인들의 회귀계수(자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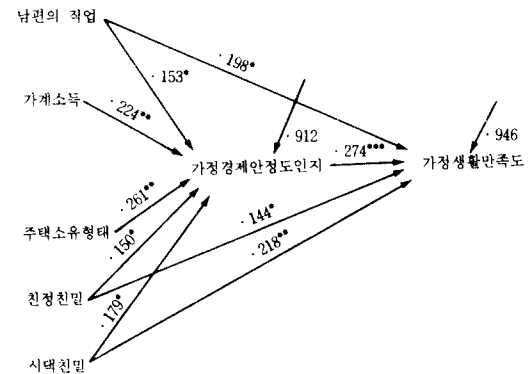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계소득	.203	.071	.224**
	주택소유형태	.357	.111	.261***
	남편의 직업	.102	.053	.153*
	친정친밀	.100	.053	.150*
	시댁친밀	.130	.058	.179*
	상수	2.264	.322	
N = 127 SEF = .573 R ² = .297 F = 10.381***				
가정생활만족도	친정친밀	.114	.063	.144*
	시댁친밀	.184	.065	.218**
	남편의 직업	.180	.060	.198*
	가정경제안정도인지	.315	.097	.274***
	상수	1.271	.436	
N = 131 SEF = .665 R ² = .233 F = 9.734***				

* P<.05 ** P<.01 *** P<.001

<표 7.2> 관련변인의 인과효과(자립형)

독립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소득	.061	-	.061
주택소유형태	.072	-	.072
남편의 직업	.240	.198	.042
친정친밀	.185	.144	.041
시댁친밀	.267	.218	.049
가정경제안정도인지	.274	.274	-

력을 보인 변인은 가계소득($\beta = .224$), 주택소유형태($\beta = .261$), 남편의 직업($\beta = .153$), 친정친밀($\beta = .153$), 그리고 시댁친밀($\beta = .179$)이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30%이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일수록,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친정 및 시댁과 친밀할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의 경우는 가계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금전적인 요소가 가정경제안정



<그림 5> 경로모형(자립형)

정적으로 수용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정생활만족도에는 남편의 직업($\beta = .198$), 친정친밀($\beta = .190$), 그리고 시댁친밀($\beta = .210$)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3.3%이다. 즉,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친정 및 시댁과 친밀할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형의 경우도 부양형과 의존형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경제요소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 가정경제안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자신의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이므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고려된다.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요인(가계소득, 주택소유형태, 남편의 직업)과 친정 및 시댁친밀이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즉,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객관적인 경제요소와 심리적인 친밀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정친밀과 시댁친밀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시댁친밀이 친정친밀보다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신혼기가계의 주부는 친정보다는 시댁과의 원만한 관계적응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가정경제안정도인지에 객관적인 경제요소와 심리적인 친밀도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신혼기가계의 가정경제자립유형의 분포는 자립형(부양형)의존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가계에서 자립형이 것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 가계를 스스로 운영하는 데 가정의 경제력이 자신의 가계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혼기 가계의 가정경제자립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립형은 전체 응답자의 약 50%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60%이며 가계소득은 101-150만원이 45%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약 60%이며, 주택의 크기는 16-25평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의 학력은 대졸이상과 대졸

미만 모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38%로 가장 많았다.

친정친밀과 시댁친밀은 각각 평균 3.5, 3.7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며,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는 각각 평균 3.5, 3.3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일수록,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친정 및 시댁과 친밀할수록,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하면서도 양가와 비슷하게 심리적으로 친밀하다는 것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역시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정생활만족은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친정 및 시댁과 친밀할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형의 경우도 부양형과 의존형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경제요소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 가정경제안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자신의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이므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립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시댁과의 친밀도, 가정경제안정도인지, 가정생활만족도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부양형은 약 30%를 차지하였고,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약 60%이며, 가계소득은 101-150만원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60%)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40%)보다 더 많았으며, 주택의 크기는 15평-25평이 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부의 학력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 남편의 직업은 사무직이 3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부양액수는 19만원이다.

친정과 시댁에 대한 친밀도는 각각 평균 3.7, 3.9로 중간이상이며,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는 각각 평균 3.8, 3.5로 중간이상이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일수록, 그리고 주택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혼가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친정이나 시댁을 부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친밀도 보다는 그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력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주택이 자가일수록, 젊은 주부일수록, 그리고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높았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높은 편이며, 심리적인 친밀도와 가정생활만족도는 중간정도이다.

3. 의존형은 전체 응답자의 20%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연령은 20대(66.7%)가 30대(33.3%)보다 더 많았으며, 가계소득은 51-100만원이 42%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으며, 주택의 크기는 16-25평이 가장 많았으며, 주부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약 80%인 것은 주목할 일이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이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의존액수는 31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 전문직인 경우에 의존형이 많다는 것은 흥미있는 결과이다.

친정친밀과 시댁친밀은 각각 평균 3.9, 4.1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만족도는 모두 평균 3.7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자가인 경우, 높게 인지하며, 이는 신혼기가계의 가장 우선적인 경제문제라고 볼 수 있는 주택마련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정경제를 안정적으로 인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생활만족도는 시댁과 친밀할수록, 가정경제안정도를 높게 인지할수록, 높았다. 의존형의 경우는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심리적인 친밀도 특히, 시댁친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인 친밀도와 가정생활만족도는 높은 반면, 가정경제안정도인지는 중간정도이다.

주부의 학력과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친정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이 자가이고, 큰 평수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댁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고, 주택이 자가인 경우, 그리고 남

편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가정경제안정도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경제안정도는 객관적인 가정경제상태를 근거로 평가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주부의 학력이 높고, 주택이 자가이고,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은 경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만족도와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간에는 높은 정적관계가 있음을 암시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경로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변인과 심리적 친밀도 변인은 가정경제안정도인지를 매개로 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모델은 신혼기가계에 있어서 가정생활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심리적 친밀도와 가정경제안정도인지가 작용함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 가정경제자립유형 중 양가와 비교적 심리적으로 친밀할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안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결과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혼기가계의 주부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가정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원활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혼기가계를 위한 가정경제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신혼기가계의 가정경제자립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므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척도를 개발하면, 폭넓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 2) 김경자(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07-118
- 3) 이기춘·민현선(1992), “도시신혼기 가계의 주부 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0(4), 107-120

- 4)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 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조은정(1994),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 선호-신혼주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동분석-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6
- 7) 홍향숙·이기춘(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4
- 8) Berry, R. & Williams, F. (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 M. F., 49, 107-116
- 9) Davis, E. P. & Helmick, S. A. (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 H. E. R. J., 14(1), 123-131
- 10) Fitzsimmons, V.S.(1987), "Family Life Cycle Changes in Money Management : Newlywed Families and Full-nest Famili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55-58.
- 11) Hira, T. K., Fanslow, A. M., & Titus, P. M. (1989), "Changes in financial status influencing level of satisfaction in household", Life 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07-122
- 12) Horton, S. E. & Hafstrom, J. L.(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 E. R. J., 13(3), 292-303
- 13) Mugenda, O., Hira, T. K., & Fanslow, A. 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14) Rowland, V. T., Dodder, R. A., & Nickols, S. Y.(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 E. R. J., 14(2), 218-225
- 15) Stampfl, R. W.(1979), "Family research : consumer education needs in the family life cycle", J. of H. E., 22-27
- 16) Schnittgrund, K. P. & Baker, G.(1983),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ilies", J.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261-270
- 17)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s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 E. R. J., 17(4), 309-318
- 18) Williams, Flora L.(1989), "Research in Family Financial Counseling", Life 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181-204